

롯데갤러리 광주점·지구발전오라 '아트 세일 페스타' 내년 1월2일까지

“지역 젊은 예술가들 작품 소장하세요”

광주·전남·북 청년작가 68명 참여

40-50만원 대 125점 소품 판매전

연말을 맞아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아 판매하는 전시가 열린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은 내년 1월2일까지 '아트 세일 페스타 ; 노마+진'(Art sale festa ; noma + jean)전을 연다.

전시 부제인 '노마'(noma)는 바이올스를 의미하며, '진'(jean)은 젊음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지칭한다. 이는 젊음의 바이올스가 퍼져 나감을 뜻한다.

이 전시는 광주지역 비영리 문화공간인 '지구발전오라'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전남·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68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관한 '지구발전오라'의 김택현 디렉터는 “‘노마진’이라는 어감에서 읽혀지듯이 작품 판매의 이윤을 도모하는 것보다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에는 총 125점이 출품되며 본 전시의 작품 구성은 평균 40-50만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 선에서 소장할만한 소품 위주로 꾸려졌다. 무엇보다도 청년예술가의 작품 소개에 중점을 뒀 진행되는 자리다.

참여 작가는 광주·전남지역 20대 작가 17명, 30대 작가 26명, 40대 작가 10인을 포함해, 전북 지역의 30-40대 작가 15인이다. 24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한다.

장르 구성은 서양화, 한국화, 사진 등의 평면 작업부터 입체작업인 조소, 공예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작가들의 아트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전시 부대행사로 '선물바라미'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20점 한정판의 판매가 1



박성완 작 '함덕해변 오후'



강동호 작 '축제의 시작'

0만원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랜덤 형식의 럭키박스 프로그램으로 전시 기간 중 참여할 수 있



박인선 작 '뿌리'

다.

고영재 롯데갤러리 큐레이터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인 연말, 청년작가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문의 062-221-1807)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광주비엔날레, 이이남 작가 작업실 간다

오늘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다섯 번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으로 14일 오후 2시 이이남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이는 재단의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지역 작가들은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자리한 이이남 스튜디오를 찾아 작업 세계를 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고전 명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디오 아티스트’인 이이남 작가는 고전 명화를 차용한 그 만

의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전 명화의 원작을 살리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움직이는 화면 안에는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고 동양과 서양이 교차되면서 대중과 예술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한편,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인 이이남 작가는 벨기에, 뉴욕 등지에서 4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



이이남 작가 작업실.

/광주비엔날레 제공

15베니스비엔날레에서 ‘개인의 구축물’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종이새와 개새끼

한익사 윤희정의

'책 읽기 삶 읽기'



책이 없다면 가난한 집이다. 명화가 걸려 있고, 호화로운 가구가 있어도 책을 소유하지 않은 집은 불품였다. 잔뜩 쏘아만 둔다고 하여 책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 철저히 알아야 진정으로 소유하는 법. 일찍부터 책에 홀린 혜세는 부잣집을 구경가서 집주인에게 책들이 있는 방은 어느 쪽인지 묻는다. 외적으로는 물론, 책을 내적으로 소유했던 혜세는 존재의 고양을 누렸다. 지속적인 기쁨도 함께.

책을 아는 사람만이 자녀들이 헛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자녀는 부모 서재의 공동 주인이 된다. 자녀는 정신을 연마하는 잔잔한 과정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리하여 어린 영혼은 낮의 야만 뒤의 밤의 고요를 배우고,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과 개인의 값진 고독을 터득해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운다. 매장된 자아는 잠에서 깨어나 확고해지며 자유로워진다. 자녀는 종래 새가 돼 날아오른다. 이 모든 것이 서재에서 이뤄진다.

책은 은밀한 세계와 독자를 잇는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선대와 후대, 작가와 독자, 정신과 정신 사이를 날아다닌다. 읽던 책을 들어올려 공중에 펼쳐본다. 필릭거리는 책장은 양 날개가 돼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눈앞에서 춤춘다. 내게 포획된 책에 집중하며 나는 자유로운 비상을 훈련한다.

더 정확하게, 안전한 책이 민감하고 주의 깊은 독자를 만나 새가 돼 솟구친다. 새가 낳은 새가, 새를 낳을 새를 만났다.

서재는 새들의 창고이다. 새들의 깊고 오랜 교제는 새로운 새들을 잉태한다. 긴 수태기 끝에 아름다운 새가 탄생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새들이 한꺼번에 서식하는 서재.

엄격하게 정돈된 (그러나 새들의 날개짓들로 소란한) 내 서재에 들어앉는다. 책을 펴고 몰두한다. 나는 작가의 위엄과 권위에 순종하는가? 아뵐사, 종이새가 날아들었다. 새떼들이 나를 덮친다! 굶주린 새들은 내 영혼과 정신을 아귀아귀 파먹는다. 나는 전율하며 쓰러진다. 비상의 동력을 얻은 종이새는 다른 먹이를 향해 날아간다. 이쯤에서 걸귀는 나인가, 책인가. 수용자는 독자인가, 작가인가.

가사의 책은 창조적인 독자의 발견으로 생명을 얻는다. 능력있는 독자는 책을 읽고 나서 읽기 전과 달라진다. 올바른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독서는 책의 경쟁과 독자의 도약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인 순종이란 없다. 그러므로 작가의 인성이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에게 눈을 감으라 명령한 뒤, 눈 뜬 독자에게 파보는 “개새끼”는 욕설이 아니라 칭찬이다.

당연한듯 휩쓸려가기보다 차라리 작가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의 모습을 우리는 역설적이며 극단적인 욕설에서 예감한다.

물론, 텍스트를 마주한 독자의 바람직한 길항은 작가에 대한 맹목적 순응이 아니요, 맹목적인 거부도 아니다. 텍스트를 매개로 독자와 작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상대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텍스트 역시 가뒀진 틀에서 해방된다.

거듭 말하지만, 책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능력과 창조성이다. 독자의 예리한 긴장은 책에 숨을 불어 넣는다. 당연하게도, 독자는 책으로 창조적 날을 버린다. 단지 새로운 것은 유지할 뿐이며, 창조는 기나긴 훈련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독자로 예민한 감수성과 집중력을 연마한 독자는 소설에 주제를 부여한다. 진정한 작가는 유능한 독자를 끌어안는다.

개새끼의 창조적인 독서는 완독후 개새끼 스스로를 ‘실오라기 만큼’ 변화시키며, 책도 천재적인 반열로 올려놓는다. 종이새는 새로운 개새끼들을 향해 퍼진다. 개새끼는 저항하듯 찾아대고, 종이새는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감염은 전염된다. 이인성의 ‘당신에 대해서’는 독서윤리를 제시한다.

작가의 포용, 독자의 능력, 서재의 가치, 텍스트의 부활...나는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있다. 내 글의 독자 입장에선 메타 독서를 하는 것이 되겠다.

이 짧은 글 역시 창조적인 개새끼를 만나 종이새로 거듭나기를 꿈꾼다. 아니다. 영생을 위해 숨어있는 개새끼를 찾아 내 글이 스스로 솟구친다. 그리하여 메타메타독서, 메타메타메타독서가 줄지어 출현한다.

고요한 서재는 나로 인한 당신의 탄생, 당신에 의한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다. 서재 문을 연다. 무한한 해방과 비상을 품은 곳. 내가 날아오르고, 텍스트가 솟구치고, 멀리 있는 당신이 날아오를 것이다. 서재 한쪽 구석에 자리잡는다.

당신의 나는 나의 당신을 지금 만나러 간다. 내 참다운 당신들이 너무 그림다.



윤 희 정 한익사

세정 공인 중개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동 871-35

010-7574-9985 / Fax. 062-941-3006

◆ 상가 ◆

◆ 광주시광산구송정동대지101평 건평 160평 3층상가건물 투자적합 매매가▶9억1천만 조정안됨

장성 나노단지 근린상가 2층현재 6차선점 ▶800평당 290만

◆ 원룸 ◆

원룸빌라광산구산정동2015년준공 1층주차장 점포2.3층 원룸10칸 4층주택 보증금1300만원 월세330만 ▶매가8억

◆ 원룸 ◆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80평 룠19실 2014년 준공 ,시티 목욕탕 옆, >용2억 보1억 월520만 ▶매가 9억3000만

◆ 주택 ◆

광산구 송정동 원동동협건1년째 대지 40평 기와집 1층 내외 울 리모델링 원로 창고 뒷밭있음 매매가 ▶1억4800만원 바로 입주가능

◆ 교회 ◆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5층 60평 매매가 ▶1억7000만원 승강기있음

시내 / 시외 / 물건 접수바랍니다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문의 H.010-3605-5000

임 야 삽 니 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급매 전문



- ▶3,800만원 완도 섬주택 [도시형 주택으로 우수리됨] 살림집기 일체 1.5톤 차량까지 담으로 드림
- ▶2억 4,000만원 [대로변 상가] 구동 2층 (보 1,000만원 월 100만원 포함)
- ▶2억 8,000만원 [코너상가] 대인동 상업지 103㎡ (보 1000만원 월 100만원 포함)
- ▶2억 9000만원 [대로변 상가] 법원뒷길 대 179㎡ 2층건물, 커피숍등 최적

- ▶[동명동 주택] 대 190㎡ 2층주택 급매 3억 6,000만원
- ▶[시장상가 주택] 대지 203㎡ 2층 건물 급매 3억 5,000만원
- ▶[대단지 아파트 입구코너] 상업지 대지 307㎡ 3층건물 급매 27억
- ▶[아시아문화전당앞] 상가, 주택, 다량 보유
- ▶운암동 7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구 대로변 1층 점포 50㎡ 급매 5억원 (보 5000만원 월 200만 가능)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구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급매부동산 전문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